

古典名句

신정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

“권권복응 拳拳服膺, 이불실지 而弗失之” (중용)

원래 건망증은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이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깜빡하고 행길 것을 놓쳤을 때 “나이가 들다보니 자주 기억력이 나빠져서...”라며 말꼬리를 살짝 내리곤 했다. 요즘 건망증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보이는 증상이 되었다. 현대 사회의 중후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열쇠를 집에 두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거나 핸드폰을 두고 나와서 떠났던 곳을 다시 찾거나 중요한 서류를 사무실에 두고 나와서 전화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심심찮게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이다.

「중용」은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중도에 따르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중도’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화가 치밀면 참지 못하고 욕설이 나오고 심지어 주먹다짐까지 벌이곤 한다. 혈연과 지연 그리고 학연 등 각종 인연에 매이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막상 믿을 사람을 찾다보면 어느새 편한 사람을 찾게 된다. 즉 우리가 올바르게 행복한 삶을 아예 모른다기보다 알고 있더라도 중요한 상황에 그 가치를 놓쳐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이나 지켜야 할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 좌우명(座右銘)과 명심(銘心)이란 말이 그런 고민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좌우명’은 사람이 늘 앉는 자리 근처에 글귀를 써두어서 수시로 보면서 자신을 다짐하게 하는 것이고, ‘명심’은 아예 마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중용」을 보면 이와 비슷한 “권권복응 拳拳服膺, 이불실지 而弗失之”의 구절이 있다. “가슴에 고이 간직해서 잃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소중한 물건을 지닐 때 가슴에 아이를 안은 부모처럼 두 손을 맞잡아 가슴팍에 대고 그것을 떨어뜨리거나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신경을 다 쓴다.

“권권복응”은 바로 이처럼 손을 가지런히 모른 채 가슴에 댄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자주 깜빡깜빡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 스트라빈스키의 봄

‘봄’이라는 표제가 붙었다고 해서 마냥 사랑스러운 선율로만 된 건 아니다. 러시아 작곡가 스트라빈스키(1882~1971)의 ‘봄의 제전’에 담긴 봄의 빛깔은 좀 섬뜩하다. 아니나 다를까. 1913년 5월, 이 곡이 파리 상젤리제 극장에서 처음으로 연주되었을 때 관중 가운데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처음 몇 소절을 듣고 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그대로 앉아서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이 곡은 니진스키가 안무하여 러시아 발레단인 발레 뤼스가 선보였던 작품에 붙은 발레음악이다. 제물로 처녀를 바친다는 내용은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파격적이고 선동적이라는 데 있었다. 그래서 막상 파날레인 산 제물의 춤에 이르러서는 분개하여 매도하는 자와 흥분하여 격찬하는 자들의 아우성 소리로 오케스트라의 음악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관건은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에 있었다. 너무나 리듬이 격렬하여 발레가 따라가지 못하기도 했고, 그때까지의 클래식 음악을 대담하게 파괴해 가는 불협화음과 리듬 때문에 귀에 거슬리고 심기가 불편해져서 연주회장 문을 박차고 나가는 관객도 많았다. 지금은 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 자주 등장하여 청중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지만 당시에는 이런 파격적인 성격 때문에 스트라빈스키를 일약 불명예스러운 스타(?)로 만들어주었다.

표제 음악은 이처럼 곡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설명하거나 암시하기에 클래식 음악의 초심자에게는 표제를 이용한 감상을 적극 추천한다. 표제 하나로 음악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초심자가 아니어도 표제는 음악과 듣는 자 사이에 놓이는 다리 역할을 한다. KBS 1FM과 같은 전문 채널에서도 ‘봄’이 짙어지면 많은 이들이 ‘봄’을 탄다는 이유로, 전문가인 디제이도 한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에게 ‘봄’이라는 표제가 붙은 음악이 많이 흘러나온다.

中庸

中庸

中庸